

인사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동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우리 어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고장의 발전, 창원시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밝은 명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내에 늘 평안하고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명동항 운영위원회 일동



명동항 어촌뉴딜사업

| | |
|------|---|
| 사업명 | 명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8번지 일원(웅천동 명동항 일원) |
| 사업내용 | 명동어민회관 조성, 문화체험센터 조성, 어촌마당 거리조성, 어촌안전시설 및 경관개선, 어선접안시설 보강,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

종합계획도



오시는길



승용차

| | |
|------|---|
| 서울방면 | 중앙내륙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진해IC → 어은교차로 → 시청, 진해구청 |
| 부산방면 | 동서고가로 → 남해제2고속도로 → 웅장으로 → 어은교차로 → 시청, 진해구청 |
| 대구방면 | 중앙고속도로 → 밀양대로 → 해원로 → 어은교차로 → 시청, 진해구청 |

여행정보

| | |
|-----------|--------------|
| 창원시 해양항만과 | 055-225-6871 |
| 진해시외버스터미널 | 055-547-8424 |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 1688-0882 |



재미있는 명동 이야기

웅천 명동 왜성 | 명동의 유적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성,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성으로 현재 남은 성벽의 길이는 700~800m, 높이 3~8m로 무기도 생산한 것으로 추정



진해 장복산 봉수지 | 명동의 유적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봉수지, 명동 마을의 배후에 위치한 사화랑 봉수의 신호를 받아서 서쪽의 고산 정상부에 위치한 고산 봉수로 알렸다고 하며, 고산 봉수가 설치되고 얼마 되지 않아 헐파되었던 것으로 추정

일제시대와 명동 |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명동마을 이야기

명동에서 태어나 90세 넘게 살고 있어요. 명동은 예전에도 명동, 지금도 명동으로 불리는데, 왜정시대(일제강점기)에는 그들이 수탈을 많이 해서 정말 못 먹고 굶주리고 살았어요. 6.25전쟁 당시 나는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그 때만 명동에서 내 자리가 비어있었네요. 전쟁 후 명동에 돌아와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그리 녀낵지 못해요. 예전에 마을주민 모두 산에서 돌을 주워 다가 바다를 메운 것이 지금 뒤에 보이는 주차장이예요. 마을 사람들이 돌을지고 날라서 만든 땅인데 그때는 참 힘들었죠.

과거 명동살이 |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명동마을 이야기

고향은 통영인데 20대 시집와서 여기 산지가 벌써 50년이 다 되었어요. 처음 시집왔을 때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서 사는 게 괜찮았어요. 보통 마을 사람들은 살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마을 뒤에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조선소에 취직도 하고 자식들도 취직하고, 아니면 조선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는 돈을 좀 만지고 살았지.

명동항 주변 길 주변 명소

금빛 물결 손짓하는 삼포로 가는 길 따라가기

진해바다 70리 길은 진해수협~해양공원(명동항)-안골포 굴강까지 총 29.2km이다. 총 7개구간 중 진해해양공원과 동심이 있는 명동의 아름다운 삼포로 가는 길(3.4km)은 맛과 멋,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길로 힐링까지 더 해 준다.

- 1구간 - 진해항길(4.8km)
- 2구간 - 행암기차길(2.4km)
- 3구간 - 합포송전길(2.4km)
- 4구간 - 조선소길(5.7km)
- 5구간 - 삼포로가는길(3.4km)
- 6구간 - 흰돌메길(5.2km)
- 7구간 - 안골포길(5.3km)



짚트랙 99

해양레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소쿠리섬까지 1,399m를 최대시속 80km 속도로 아찔한 공중비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어류생태학습관

바다속 탐험, 신비로운 바다속 생명, 바다살이 등 다양한 전시스토리과 뉴시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학습공간



해전사체험관

기원전부터 2002년 서해교전까지 동·서양 주요 해전을 시대별로 관람, 전함의 변천사와 옛 해군의 주요 무기 모형도 볼 수 있는 곳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양 유영생물, 저서생물 등 해양생물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 디오라마 전시실도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하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



명동항 이야기 길 안내도



서쪽에서 밝은 마을 명동(明洞)

명동리는 1973년에 웅천면이 진해시로 편입되면서 경상남도 진해시 명동으로 개칭되었다. 명동은 서쪽을 뜻하는 '불~부락'의 변이 형태인 발과 마을로 된 발마을로 불리던 이름을 밝은 밝다는 뜻의 명(明)을 혼차하고 마을은 동(洞)을 혼차하여 된 이름으로 서쪽에 있는 밝은 마을을 의미한다. 명동에는 일명 웅도(熊島)인 밧섬과 소쿠리섬·음지도(陰地島)·초리도(草理島) 등의 섬이 많은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다.

바닷길을 만든 백선, 모성과 사랑의 전설

"할머니, 조개 주으러 빨리 가요!" 승우가 바구니를 들고 마당에서 할머니를 재촉했다. 할머니는 승우에게 오며 명동에는 한달에 한 번 바닷길이 생겨 소쿠리섬과 곰섬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옛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오래전, 막시는 어부였는데 성실하고 인정도 많았어. 막시에겐 백선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백선은 막시의 선주 아들 가우리를 사랑했어. 하지만 가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가우리 아버지가 막시에게 막말을 하고 그것을 알고 백선은 실어증에 걸렸어. 그런데 백선의 뱃 속에는 가우리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어. 그것을 안 가우리의 아버지는 백선의 가족을 무인도에 가둬 버렸어. 백선은 무인도에서 아들을 낳고 길렀어. 그러던 어느 날 가우리의 아버지가 아이를 빼앗아 갔어. 이 일을 안 막시는 시름 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

하루 두번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동심'

크기가 작아 아이섬으로 불리다 동심이 됨, 하루에 두번 간조시에 약 100m에 이르는 육계사주가 나타나 동심은 육지가 된다.



백선은 외로운 날을 보내다 용왕에게 기도 했다. "제발 하루만 바닷길이 열려 아들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용왕이 감복하여 소원을 들어주고 백선은 아들 만날 날에 **소쿠리**에 음식과 옷을 담아 바닷길이 열리기만 기다렸어. 해가 떠오르고 바닷길은 열리지 않았는데 곰섬에서 낚이는 모습이 보였어. 가우리와 그의 아내가 백선의 아들과 함께 육지로 떠나는 거야. 백선은 실어증이라 힘껏 소리쳐 불려도 들리지 않았어. 아들을 못 만나는 슬픔에 백선은 그만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어. 그 후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한 백선의 지순한 사랑을 기려 **소쿠리섬**이라 부르고 바닷길 열리는 날이 되면 모두들 소쿠리 하나씩 들고 조개와 바지락을 캐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먹이는 풍습이 생겼단다.

명동항 특산품과 맛 따라

바지락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B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국민 조개라는 타이틀이 붙여도 될 만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시원한 맛을 내기에 찌개, 칼국수, 그리고 파스타에 활용한다.



명동 미역

다시마와 함께 아이오딘이 아주 많이 함유된 음식,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가 이끄는 조선 수군에 대패한 일본군 장수가 무인도에 숨어 미역으로 목숨을 연명했다는 영양이 풍부한 명동 미역



피조개

피가 붉기에 이름 붙여진 피조개, 구이나 찜, 숙회로 많이 먹으며 풍미가 강하고 쫄깃하며, 잘 처리한 신선한 피조개 살에서는 오이와 비슷한 상쾌한 향이 난다.



미더덕

청정해역인 명동항 주변에서 생산되는 미더덕은 전국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향긋한 향과 오도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오만둥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맛!



미더덕 비빔밥

된장국이나 찜의 부재료 쓰이던 미더덕이 음식 주재료로 등극한 비빔밥, 하얀 쌀밥에 짙게 자른 미더덕을 올려 미더덕 자체의 짭조름한 간과 향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진해콩

1915년 첫선을 보인 진해콩은 밀가루와 콩가루를 반죽하여 노란 콩 모양으로 제조된 진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과자로 진해의 명물



해물찜

명동항에서 잡히는 갖가지 해물과 콩나물, 미나리 등 각종 야채와 양념을 섞어 찜으로 탄생하여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일품이다.

